

대학생의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결혼관 및 자녀관

김현[†], 홍영선^{**}

김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류마티스내과

Attitude to Reproductive health, Value of Marriage and Children of University students

Hyun Kim[†], YoungSun Hong^{**}

* Departmen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 Department of Rheumatology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in ChunAn

ABSTRACT

Background & Objectives: The aim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to reproductive health, value of marriage and children

Methods: With a descriptive survey design, a self-report study was conducted and collected 470 responses from university students in Chungcheongnam-Do.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to analyze data.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attitude to reproductive health according to the following variables: age($F=2.91, p<.05$), college($F=2.49, p<.05$), sexual experience($t=7.54, p<.001$). value of marriag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t=-7.05, p<.001$), college($F=4.42, p<.05$), plan to marriage($t=-5.58, p<.001$) and plan to having children($t=-4.30, p<.001$). Value of childre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t=4.52, p<.001$), plan to marriage($t=-4.30, p<.001$) and plan to having children($t=6.33, p<.001$). Attitude to reproductive health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value of marriage($t=6.33, p<.001$), value of marriag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value of child($r=.224, p<.01$).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education for improving attitude to reproductive health, value of marriage and child are necessary to overcome low fertility. In addition, it is needed to further research and at the national level policy.

접 수 일 : 2012년 10월 15일, 수 정 일: 2012년 11월 30일, 채 택 일: 2013년 2월 29일

† 교신저자 : 김 현 (740-704 경상북도 김천시 대학로 214)

Tel: 054-420-4254, 010-7244-6477, Fax: 054-420-4492, E-mail: hyunkim@gimcheon.ac.kr

Key words : Attitude to reproductive health, University student, Value of children, Value of marriag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관점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며, 만혼, 비혼, 출산기피현상이 발생하였다. 결혼관은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가치관(김경신과 이선미, 1998)으로 정의되는데, 결혼을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당연한 생의 과정으로 이해되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선택 혹은 의사결정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김승권(2006)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가족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여 결혼관의 변화가 가족의 기초가 되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Hoffman과 Hoffman(1973)은 자녀의 가치는 부모가 자녀를 갖고 양육하려는 동기로 이해된다고 하였고, 자녀관은 자녀가치, 자녀가치에 대한 기대가치, 자녀의 부담감, 자녀가치 형성 장애요인, 자녀가치 형성촉진요인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자녀관은 자녀를 더 가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출산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미혼남녀의 자녀출산계획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근 결혼기피와 더불어 결혼은 해도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과(장진경, 2005) 젊은 층의 결혼관과 자녀관에도 부정적 변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은 28.9세, 남성은 31.8세로 10년 전보다 평균

2세 이상이 늘어났고(통계청,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혼남성의 69.8%, 여성의 63.2%만이 결혼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변용찬 등, 2010). 또한, 우리나라의 2010년 출생아 수는 47만 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1.22명이며, 첫째 아이 출생연령은 2010년도 30.1세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통계청, 2011). 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 간 인과관계 연구(김나영 등, 2010)에서도 미혼 남녀의 출산의향은 '만드시 갖고 싶다'가 남성 24.3%, 여성 24.1%로 시간에 따라 가치관의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탄생은 결혼 후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었던 결혼관과 자녀관이 변화하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될수록 인구감소, 노동력과 생산성 감소, 미래의 노인인구 부양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저출산과 관련된 또 다른 가치관으로 생식건강의 태도를 들 수 있다.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이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성태도와 성행위는 물론 그에 따르는 긍정적, 부정적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고, 언제, 얼마만큼의 자녀를 출산할 것인지의 여부(서경, 2009)를 포함하므로, 성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태도를 유추할 수 있는 가치관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식건강이 여성 또는 부부간 형성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나 출산에 지장을 주고 건강하지 못한 생식건강이 향후 자녀에 대한 기대의 상실로 이어져 가정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황나미,

2007), 생식건강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과 이어지는 자녀관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함께 제고해 봐야 할 가치관이다.

Erickson(1994)은 대학생이 발달 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특히 대학생은 청년기와 성인 초기로 이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가치관 혼란은 성인기의 역할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이 시기에 형성된 가치관은 일생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Hitlin과 Piliavin, 2004). 그러므로 앞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당사자이면서 잠재적 의사결정자라 할 수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혼관과 자녀관 및 생식건강의 태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는 대학생의 결혼관과 자녀관을 파악하는 연구와,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김건영, 2009)가 있으며, 생식건강에 대한 연구로는 HIV/AIDS 감염 및 예방(Hendricksen 등, 2007), 생식건강 교육 후의 성병과 AIDS에 대한 비교(Chen 등, 2008), 모성 건강 및 출산과 관련된 연구(황나미, 2007), 생식건강 관련 건강행위(안숙희 등, 2008) 및 생식건강 증진 프로그램 효과 확인(신경림 등, 2010) 등으로 결혼관과 자녀관의 실제 파악이나 생식건강 관련 교육의 효과를 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미래의 저출산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혼관, 자녀관, 생식건강 관련 태도를 함께 파악하고 상관성을 보고자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결혼관 및 자녀관에 대해 파악하고, 상관성을 확인하여 대학생의 결혼 및 출산, 생식건강 관련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결혼관, 자녀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의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결혼관, 자녀관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생식건강은 생식기관, 생식기능 및 생식과정과 관련된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ICPD], 1994)이며, 본 연구에서는 안숙희 등(2008)의 연구에서 생식건강에 세부적으로 포함되는 개념 중 임신 및 출산, 성 건강, 성행동, 성의식, 인공 임신중절술, 피임 등의 생식건강에 대한 개인적 태도에 대한 문항을 말한다.

2) 결혼관

결혼관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가치관을 말하며(김경신과 이선미, 1998), 본 연구에서는 이삼식(2006)의 결혼관 측정 도구 중 결혼의 조건, 필요성, 결혼에 대한 대학생들의 개인적인 태도 및 생각 및 이혼에 대한 태도 문항을 말한다.

3) 자녀관

자녀관은 자녀에 대한 가치로써 자녀가치, 자녀가치에 대한 기대가치, 자녀의 부담감, 자녀가치 형성 장애요인, 자녀가치 형성촉진요인을 포함한다(Hoffman과 Hoffman, 1973). 본 연구에서는 이삼식(2006)의 자녀관 측정 도구 중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에 대한 의무감, 자녀교육에 대한 태도 문항을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결혼관과 자녀관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소재 S 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대학생들 중 연구자의 설문지도를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서를 작성한 남·여 대학생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결측 및 부실 기재한 응답자를 제외한 470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위하여 Cohen의 Statistical power analysis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0, 검정력 0.9를 유지하기 위한 표본 수는 468명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3.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 10-06)의 승인 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모집에 있어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포기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 연구 참여 대상자를 최대한으로 보호하였다.

4. 연구도구

1)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의 측정도구는 안숙희 등(2008)의 연구에서 생식건강 관련 건강행위 측정용

위해 사용한 문항 중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측정에 꼭 필요하다고 평가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본 도구는 Pilot study를 통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9 이었다.

2) 결혼관

결혼관에 대한 도구는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삼식(200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 형태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Pilot study를 통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 .7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3) 자녀관

자녀관에 대한 도구는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삼식(200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형태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구성 되어있으며,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Pilot study를 통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 .7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9$ 이었다.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결혼관 및 자녀관에 대한 점수의 차이는 t-test, ANOVA 후 사후 분석으로는 Scheffe test를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 대학생의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와 결혼관 및 자녀관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소속 단과대학, 성경험 여부, 성관계 시 피임여부, 성병 감염 여부, 임신 경험 여부, 인공유산 경험 여부, 결혼에 대한 희망, 자녀 갖기에 대한 희망 등의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268명(57.0%)으로 남자 202명(43.0%)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20세가 370명(78.7%)으로 가장 많았고, 19세가 57명(12.1%), 21세가 34명(7.2%), 22세 이상이 9명(2.0%)순이었다. 소속 단과대학은 인문사회대학 91명(19.4%), 자연과학대학 90명(19.1%), 공과대학 96명(20.4%), 예·체능대학 98명(20.9%), 의료과학대학(의과대학포함)95명(20.2%)이었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

Category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202(43.0)
		Female	268(57.0)
Age		≥22	9(2.0)
		21	34(7.2)
		20	370(78.7)
		19	57(12.1)
Major		Humanity and Sociology	91(19.4)
		Natural science	90(19.1)
		Engineering	96(20.4)
		Art and Sports	98(20.9)
		Medicine and Health	95(20.2)
Sexual experience	Yes	Male 39(68.4) Female 18(31.6)	57(12.1)
	No		413(87.9)
Contraception at intercourse(=57)	Yes		4(7.0)
	No		53(93.0)
*STD history(n=57)	Yes		4(7.0)
	No		53(93.0)
Experience of pregnancy (n=57)	Yes		7(12.3)
	No		50(87.7)
Experience of artificial abortion	Yes		7(12.3)

Category	Characteristics		n(%)
(n=57)	No		50(87.7)
Plan to marriage	Yes	Male	171(84.7)
	374(79.6)	Female	203(75.7)
	No	Male	31(15.3)
	96(20.4)	Female	65(24.3)
Plan to having children	Yes	Male	164(81.2)
	366(77.9)	Female	202(75.4)
	No	Male	38(18.8)
	104(22.1)	Female	66(24.6)

*ST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성경험 유무에 대한 답변은 ‘예’가 57명(12.1%), ‘아니오’가 413명(87.9%)이었다. 성경험이 ‘예’인 경우는 남자 39명(68.4%), 여자 18명(31.6%)이었다. 성경험이 있는 경우 성관계시 피임 여부에 대해 ‘예’가 4명(7.0%), ‘아니오’가 53명(93.0%)으로 나타났고, 성병의 경험이 ‘있다’가 4명(7.0%), ‘없다’가 53명(93.0%)으로 나타났으며, 자신 또는 성 파트너의 임신 경험이 있는 수가 7명(12.3%), 없는 수가 50명(87.7%), 자신 또는 성 파트너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경험이 ‘있다’가 7명(12.3%), ‘없다’가 50명(87.7%)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희망여부 질문에 ‘예’는 374명(79.6%), ‘아니오’가 96명(20.4%)이었다. 남자의 경우 ‘예’가 171명(84.7%), ‘아니오’가 31명(15.3%) 이었고, 여자는 ‘예’가 203명(75.7%), ‘아니오’가 65명(24.3%)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을 희망하는 수가 많았다.

대상자의 자녀 갖기에 대한 희망여부 질문에 ‘예’는 366명(77.9%), ‘아니오’는 104명(22.1%)이었다. 남자의 경우 ‘예’가 164명(81.2%), ‘아니오’가 38명(18.8%)이었고, 여자는 ‘예’가 202명(75.4%), ‘아니오’가 66명(24.6%)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자녀를 희망하는 수가 많았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결혼관 및 자녀관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결혼관 및 자녀관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남·여 대학생들의 성별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결혼관($t=-7.05, p<.001$)과 자녀관($t=4.52, p<.001$)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는 22세 이상, 21세, 20세, 19세 순으로 점수가 높았고, 결혼관은 21세, 19세, 20세, 22세 이상 순으로 점수가 낮았으며, 자녀관은 21세, 19세, 20세, 22세 이상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연령별 학생들의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F=2.91, p=.034$), Scheffe test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과대학별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는 의과학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인문사회대학과 예·체능 대학 순으로 점수가 높았고, 결혼관은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예·체능대학, 인문사회대학과 의과학대학순으로 점수가 낮았으며, 자녀관은 공과대학, 예·체능대학, 자연과학대학, 의과학대학과 인문사회대학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단과대학별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2.49, p=.042$), 결혼관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Attitude to reproductive health, value of marriage and childre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sexual experience

Category	Characteristics (N)	Attitude to reproductive health		Value of marriage		Value of children	
		M±SD	F/t (p)	M±SD	F/t (p)	M±SD	F/t (p)
		(N=470)					
Gender	Male (202)	58.8±0.71	1.38	26.3±0.42	-7.05	23.9±0.42	4.52
	Female (268)	57.5±0.60	(.171)	30.3±0.38	(.000 *)	21.5±0.34	(.000)
Age	≥22(9)	65.3±3.02		29.9±3.17		21.3±2.2	
	21(34)	59.6±1.98	2.91	28.0±1.0	0.74	23.5±1.11	0.94
	20(370)	58.1±0.50	(.034 *)	28.7±0.32	(.526)	22.3±0.30	(.420)
	19(57)	55.7±1.43		28.6±0.3		22.3±0.27	
College	Humanity and sociology(91)	56.4±1.0		28.9±0.67(a)		21.7±0.62	
	Natural science (90)	58.9±1.1		27.4±0.67(b)	4.42	22.5±0.62	
	Engineering (96)	59.0±1.0	2.49 (.042 *)	27.3±0.65(c)	(.002 *)	23.6±0.60	1.87 (.114)
	Art and sports (98)	56.4±1.0		28.6±0.64(d)	b<e, c<e**	22.9±0.59	
	Medical and health(95)	59.9±1.0		30.7±0.65(e)		21.7±0.60	
Sexual experience	Yes 57	67.0±1.57	7.54	29.2±1.03	0.73	22.5±0.28	0.26
	No 413	56.9±0.45	(.001 *)	28.5±0.31	(.463)	22.5±0.27	(.792)
Plan to marriage	Yes 374	58.4±0.51	1.30	27.8±0.31	-5.58	23.2±0.30	4.88
	No 96	56.9±1.08	(.192)	31.8±0.74	(.001 *)	19.9±0.60	(.001)
Plan to having children	Yes 366	58.2±0.50	0.46	27.9±0.32	-4.30	23.4±0.29	6.33
	No 104	57.7±1.13	(.646)	30.9±0.67	(.001 *)	19.4±0.61	(.001)

* p<.05

** Scheffe test

(F=4.42, $p=.002$). 결혼관의 Scheffe test 결과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이 의료과학대학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성경험에 따른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7.54$, $p=.001$), 결혼관과 자녀관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희망 여부에 따른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결혼관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5.58$,

$p=.001$), 자녀관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88$, $p=.001$). 자녀 희망 여부에 따른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결혼관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4.30$, $p=.001$), 자녀관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6.33$, $p=.001$).

3. 대상자의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결혼관 및 자녀관과의 상관관계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결혼관 및 자녀관과의 상관관계는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와 결혼관이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283, p<.01$), 결혼관과 자녀관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24, p<.01$)<Table 3>.

<Table 3> Relationship among attitude to reproductive health, value of marriage and children (N=470)

	Attitude to reproductive health	Value of marriage	Value of children
Attitude to reproductive health	1		
Value of marriage	-.283**	1	
Value of children	.074	.224**	1

** p<.01

I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결혼관, 자녀관에 대하여 파악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들의 성경험 여부는 없다는 응답이 413명(87.9%), 있다는 응답이 57명(12.1%)이었고,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남자가 39명(68.4%), 여자가 18명(31.6%)으로 나타나 성경험이 없는 학생이 많았고, 성별로는 남자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성관계 실태를 연구한 안숙희 등(2008)의 결과인 19.8%보다 낮았고,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경험율을 조사하여 남자가 69%, 여자가 59%라고 보고한 Yamamoto(2006)의 결과와 비교할 때는 크게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응답자의 연령이 19세, 20세가 90.8%로, 연령대 분포에 대한 차이를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간의 성에 대한 의식차이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제로 성경험이 있는 학생의 7%는 자신 또는 성 파트너의 성병의 경험이 있었고, 임신 경험과 인공임신 중절수술의 경험도

12.3%가 있었으며, 자신 또는 파트너의 임신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00% 낙태경험이 있었다. 이는 손애리와 천성수(2005)의 성경험자의 17.6%(남학생의 성 상대자 18.4%, 여학생 13.4%)가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했고, 21.9%(남학생의 성 상대자 20.0%, 여학생 22%)가 낙태를 경험하였다고 한 결과와, 성경험이 있는 여학생의 10.5%가 임신을 경험하고, 이들 중 79.6%가 인공중절수술을 경험하였다고 한 이임순 등(2010)의 연구보다 높은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피임의 실천율이 낮은 연구결과와 무관하지 않으며 결국 소극적인 피임의식이 성병, 미혼임신과 낙태율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특히 성병의 경우 자신의 감염으로 인해 성 파트너에게도 전염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초기증상 및 감별진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콘돔을 사용한 적극적인 예방 대책 및 피임 교육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출산과정의 이해와 콘돔 사용 등의 실제 활용이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성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상자들의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성경험 및 성문화접촉의 기회가 많아져 성문화에 좀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는 기존연구의 연령별 성 태도의 차이가 다르다고 보고한 김영혜 등(2003)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대상자의 성 태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김보배 등(2004)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단과대학 별 차이는 의료계열학생들과 비 의료계열 학생들 간에 성 행위와 관련된 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Chen 등(2008)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성경험 유무에 따른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점수를 비교해 보면 성경험이 있는 집단의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희망은 '예'가 79.6%였으며, 이중 남자는 84.7%, 여자는 75.7%가 결혼을 희망하여 남자가 결혼을 좀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 남녀를 상대로 결혼계획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결혼을 할 것이라는 응답이 93.5%라고 보고한 장진경(2005)의 연구 결과보다 낮았으며 결혼이 여성의 자아성취감에 영향을 주고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관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아 결혼관이 여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결혼관을 조사한 결과 여자가 남자에 비해 호의적으로 나타난 Salt 등(1994)의 결과와는 상이 하였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혼관 조사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점수가 높았던 김건영(2009)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대의 차이에 따른 결혼관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관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남학생의 53%가 '반드시 결혼해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

생은 18.8%에 불과해 결혼관에 대한 남녀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Yeongnamilbo, 2012). 이처럼 여러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자가 남자에 비해 결혼관이 부정적인 것은 결혼제도가 여성에게 더 많은 부담과 기회비용 소실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결과이며,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교육수준의 향상,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인정,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진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혼관은 단과 대학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대학생의 전공에 따라 결혼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전공이 결혼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김건영(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자녀 갖기에 대한 희망은 '예'가 77.9%였고 이중 남자는 81.2%, 여자는 75.4%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승권(2004)의 연구에서 자녀가 꼭 있어야 하거나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응답을 78.5%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고, 대상자의 94.0%가 자녀를 가질 생각이라고 보고한 장진경(2005)의 결과와 비교할 때는 낮은 결과였다. 외국의 경우 Obradovic(2011)의 연구에서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사회의 변화 및 가치관이 결혼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의 원인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가중되는 사회적 의식과 가치관에서 기인되므로 남성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공동책임의식 함양 역시 요구된다.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녀관 조사에서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젊은 부부의 이혼',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의식의 확산',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등의 순으로 꼽아, 보육과 관련한 사회적 정책 부족 역시 대학생의 자녀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Yeongnamilbo, 2012).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가부장적 가족 체

체가 유지 되어 오면서 기성세대의 출산과 양육이 여자의 역할이라는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어 자녀 양육에 모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중되며 보육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이 크고 실제적인 보육지원 체계가 부족한 현실이다.

남·여 대학생들의 자녀관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남녀 학생들이 자녀의 필요성과 자녀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윤미라(2006)의 연구 결과와 같았고, 산업화로 인해 여성들이 양육보다는 일을 통해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을 저하로 이어졌다고 보고한 Obradovic(2011)의 결과와 유사 하였다. 실제적인 출산과 양육을 책임져야 할 여성의 결혼관의 변화가 만혼과 비혼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자녀관에 영향을 주어 출산을 감소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주소의 반영이라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취업을 고민하는 고학년이 되면서 이러한 부정적 가치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여겨진다.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와 결혼관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결혼관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전에 성에 대해 개방성을 보였던 여성들에게서 이혼의 위험률이 높아 결혼 전의 성에 대한 전통적인 의식이 결혼에 대해서는 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다고 보고한 Kahn과 London(1991)의 결과와 상이하다. 반면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 중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동기가 있으며 성의식이 결혼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했던 권인숙(2003)의 결과와는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다. 최명숙과 하나선(2004)의 연구에서도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 지식, 성적 자율성, 성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성 태도가 개방적인가 보수적인가는 본인의 가치관의 문제라고 하여 가치관의 변화를 언급하였다. 최근 미디어와 스마트폰의 발달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면서 생식건강에 대한 정보 역시 그 개방성의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정보들이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대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분별력과 바람직한 생식건강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학교보건교육정책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대학 1학년은 시기적으로 전공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시기이고, 교양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운영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양 과목을 통한 건강한 가치관 형성은 성인기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국내 대학생의 교양과목은 대부분 영어와 정보화 교육에 편중되어 있어 생식건강에 대한 교육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건강한 생식태도 정립을 위한 교양 과목 개설 및 특강 협약 등의 지속적인 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결혼관과 자녀관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결혼관이 긍정적일수록 자녀관은 부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선행 연구의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은 자녀관도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한 윤미라(2006)의 결과와 상이하였으며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 시기의 차이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학생들이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가치관으로부터 탈피하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기는 부담스럽다는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곧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기피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출산에 대한 우호적인 교육과 더불어 출산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순기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취를 위한 학교보건교육이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충남 S 대학교의 470명의 남·여 대학생들의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결혼관 자녀관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는 연령, 소속 단과대학, 성관계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결혼관은 성별 및 단과대학, 결혼 희망 여부, 자녀 희망 여부에 따라, 자녀관은 성별, 결혼 희망 여부, 자녀 희망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와 결혼관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결혼관과 자녀관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결혼관과 자녀관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와 결혼관 및 결혼관과 자녀관에서의 상관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1학년 학생에 제한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전체 대학생에게 연구 결과를 적용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개념들 간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바람직한 결혼관, 자녀관, 생식건강의 태도 형성을 위한 학교보건 교육안의 마련 및 교육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권인숙,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성의식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대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3.
2. 김건영. 대학생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광주: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9.
3. 김경신, 이선미.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 한국가정과학회지 1998;1(1):27-43.
4. 김나영, 이지혜, 김은정, 김경신. 출산관련 의식 변화와 출산율 간 인과관계 연구. 보건사회연구 2010;30(4).
5. 김보배 외 9명. 서울시내 일부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2004;38:61-72.
6. 김승권.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2004;27(2):1-34.
7. 김승권.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8. 김영혜, 어용숙, 이화자, 최소영. 대학생의 성태도 유형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2003;6(2):115-126.
9. 변용찬, 김동희, 이송희.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보건사회연구, 2010.
10. 서 경. 생식건강.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9;52(4):387-390.
11. 손애리, 천성수(2005). 전국 대학생의 성의식, 첫 성경험 및 성행동에 대한 성차. 보건과 사회과학 2005;18:73-100.
12. 신경림, 박효정, 홍정민. 생식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 호학회지 2010;22(4):448-456.
13. 안숙희외 5명. 대학생의 생식건강 관련 건강행위, 생식건강력 및 성행위 실태. 여성건강학회지 2008;14(3):205-212.
14. 윤미라. 고등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적 가정환경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6.
15. 이삼식(2006).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16. 이임순, 최규연, 차상헌, 박혜연, 이정재.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 행태 조사: 2007년 3차 조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10;53(6):512-519.
17. 장진경.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 2005;43 (11):165-182.
18. 최명숙, 하나선.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격형, 성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4;10(4), 318-330.
 19. 황나미. 가임기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건강 요인연구. 보건사회연구 2007;27(2): 122- 141.
 20. 통계청. 2011 인구동향조사 통계DB. 서울: 통계청, 2011.
 21. Chen B 외 9명.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 needs of university/college students: updates from a survey in Shanghai, China. Asian Journal of Andrology 2008; 10(4):607- 615.
 22. Erikson E.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94.
 23. Hendricksen ES, Pettifor A, Lee SJ, Coates TJ, Rees HV. Predictor of condom use among young adults in South Africa: The reproductive health and HIV research unit national youth surve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7;97(7):1241-1248.
 24. Hitlin S, Piliavin JA. Values: Reviewing a Dormant Concep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004;30:359-393.
 25. Hoffman LW, Hoffman ML.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Population. New York, In James T Fawcett(Eds) Basic Books, 1973.
 26.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2>.
 2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 programme of action of the conference, Cairo, Egypt, September 1994.
 28. Kahn JR, London KA(1991). Premarital sex and the risk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991;53(november):845-855.
 29. Obradovic J, Cudina M. Child-Bearing Attitude in Croatia: A Country Passing through the Modernization Proces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011;42(1):77-93.
 30. Salt CJ, Seismore MD, Lindholm BW, Smith TA. Attitude toward marriage and premarital sexual activity of college freshmen. Adolescence 1994;29(116):775-779.
 31. Yamamoto K. Cross-sectional study on attitude toward sex and sexual behavior among Japa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hysiological Anthropology 2006;25(3):221-227.